

# 천도재와 우란분재에는 어떤 음식이 쓰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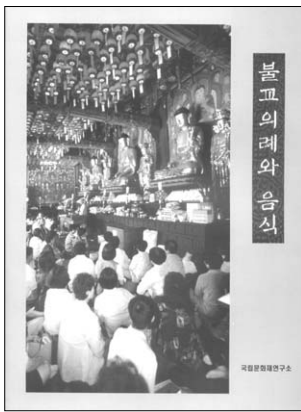
종교의례는 어느 것 하나 종교적인 혹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불교의례에는 작게는 기복이, 크게는 광도중생(廣度衆生)의 의미가 담겨 있다. 법패와 염불이 주를 이루는 불교의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양물이다. 재 올릴 때마다 불단과 영단에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어느 재에 무슨 음식이 쓰이는지, 의례마다 음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음식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놓을까? 하는 궁금증은 누구나 가져왔을 법하다.

그동안 불교의례 관련 책자를 꾸준히 발간해 학계에 풍부한 학술연구 정보를 제공했던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진)가 발간한 <불교의례와 음식>은 이런 고민에 대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불원사와 진관사, 공주 갑사 등 전통 사찰을 방문해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 자료를 남겼다. 자료조사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팀과 함께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과 김상보 교수(대전보건대), 심효섭 실장(가천박물관 학예실) 등 전문가가 동참했다. “이제까지의 연구조사 발간 자료가 이론에 치중돼 있었다면 이번 자료는 현장 중심의 기록”이라고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

불교의례 중 대표적인 천도재와 우란분재를 소재로 서술된 보고서는 <불교의례와 음식>이라는 제목처럼 크게 의례와 음식 부분으로 나뉜다. 천도재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

다. 유교 제례의 음식이 가짓수나 상차림 배선 등 형식에 엄격함과 달리 불공(佛供)은 수미산을 향상화할 목적으로 단을 보다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미는데 치중한다.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은 꽃, 과일, 쌀, 차, 향 등 다섯가지로 제한



불교의례와 음식

하리’는 내용에서 유래했다. 때문에 우란분재에 사용되는 음식은 대웅전, 대적전, 팔상전, 지장전 등 제불보살의 힘을 빌기 위해 5종의 과일을 올린다. 조상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음식인 각종 나물과 전·탕이 추가된다. 의례는 몸과 마음

재는 절편에 ‘암(唵)’자를 박아 ‘움자떡’을 올린다.

책은 제물 외에도 스님들의 일상식과 그에 관한 조리법 등을 다뤘다. 두부전, 콩, 다시마튀김과 갯송아리 부각, 강판(콩나물과 다시마 부신 것)을 얹은 밥 등 소위 웰빙식으로 손색이 없는 먹거리가 담겨, 불교의례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찰 음식에 대한 정보와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발간된 책자의 원문을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ich.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동성 기자

##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의례와 음식’ 출간

### 연구소 조사팀과 전문가들 동참 · 현장 중심의 기록

###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려운 사찰음식에 정보와 재미

된다. 또 장엄한 기도가 담긴 고임음식을 통해 공양물의 높이를 달리해 상위와 하위의 우열을 나눈다.

우란분재는 음력 7월 보름에 부처님께 공양해 조상의 혼령이 사후세계에서 구원받기를 기원한다. 우란분재의 음식은 부처님이 목련에게 말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방 불보살의 힘을 빌려야 한다. 7월 15일이 되면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5종의 과(果)를 준비해 이것을 분에 담아 시방 대덕에게 공양

을 정갈히 하며 (모시는) 대상을 불러온 뒤 음식을 제공한 다음 보내 드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혼을 모실 때 ‘연(蓮, 가마와 비슷한 도구)’을 이용하기도 했고, 초대받지 못한 혼을 위해 별도의 제물상을 차리는 것도 불교의례의 특징이다.

제물은 예전에 직접 경작된 것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보통 구입해서 쓴다. 올려지는 음식은 나물, 채소, 두부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무침과 전이 주류다. 사찰별 특징이라면 불원사 영산

### Tip 재(齋)와 제(祭) 어떻게 다를까?

불교에서는 재를, 유교에서는 제를 지낸다. 불교의 우란분재, 기일재, 중음의 행사 등은 추모의식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영혼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줌으로써 재를 올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법문을 듣는 죽은 영혼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유교의 제는 조상의 영혼에 예를 갖추으로써 가호를 바라는 성격이 짙다. 제 제사는 참여자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조해 유교적 가족체계를 잇는 역할을 한다.

# ‘부처님은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했다’

## 구병진 박사, ‘불교사상에 근거한 경영패러다임 연구’ 통해 발표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삼성그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는 요즘, 기업의 가치와 기업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다. 이런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현대의 기업활동을 다룬 학위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2월 22일 동국대에서 학위를 받는 구병진 박사(사진)의 학위청구논문 ‘불교사상에 근거한 경영패러다임 연구’는 불교적 관점에서 서구 철학에 기인한 현대 경영사상을 통째로 흔드는 것에서 시작됐다.

구 박사는 ▲이윤극대화 ▲경쟁 ▲고객 만족경영 ▲혁신 패러다임 등으로 요약되

는 현대 경영사상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켰지만 정신적으로도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대 경영사상을 불교 이념에 대입해 조목조목 비판한 그는 불교경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 박사가 말하는 불교경영은 주주행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 개념으로 기존 현대 경영이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과 비교된다. 구 박사는 “주주행복의 극대화는 불교의 열반과 일맥상통한다”며 “경영의 목표가 이익이 아닌 행복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

로 ▲자리아이 경영 ▲윤리 경영 ▲변화주도 경영 ▲윤회 경영 ▲지혜 경영의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판단사전법문에서 다소 생소한 ‘경영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구 박사의 화려한 경력 덕분이었다. 구병진 박사는 서울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미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 연구원과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실장 등을 두루 지내고 현재 (주)교양과 행복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력과 실례에 달통한 경영학 인재로 알려져 있다. 구 박사 논문심사를 한 김용표 교수(동국



대)는 “불교에서 통찰을 얻어 불교경영의 저변확대를 이룬 논문”이라고 말했다. 구 박사를 지도한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기존 경영학에서 만족할 수 없던 한계 해결을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논문이다. 희망의 경제, 상생의 경제에 대한 해답을 불교에서 찾은 논문으로 응용불교학 분야에서 특기할만한 좋은 논문”이라고 평했다. 이제 불교경영학이 온전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실증적 검증만이 남게 됐다. 조동성 기자

### Tip

A&HCI는?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약자로 톨슨 사이언티픽이 제공하는 예술 및 인문학분야인문학자를 뜻한다. 발간의 적기성, 국제적 편집 표준, 국제적 다양성 등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한편 톨슨 사이언티픽은 연구에 사용되는 여러 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으로, 톨슨 사이언티픽이 제공하는 SCI(과학인문학)와 A&HCI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월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 사찰음식문화학과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월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적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2.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3기생)
3. 개강일시 : 3월 5일(수) 오후 2시
 

과정	기간	요일	내용	지도교수
사찰음식 문화학과 (30명)	기본과정 1년 (2학기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 사찰음식	정산스님 외 교수진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02)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수행요가의 상징 요가삼밀지도자과정(2년)

## 요가삼밀 학과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강중심의 요가, 보다 자아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가를 교육하면서 더 나아가 신, 구, 의 삼밀수행자세를 나타내는 진언, 수인, 관법의 밀교의 수행을 통한 불교요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 요가삼밀학과 (2년과정)
3. 개강일시 : 3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기간 · 요일	과정	지도교수
지도자과정	· 요가과정 · 요가이론, 요가수트라, 요가생리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이시나신수, 요가자기전달법, 요가운동방법	· 요가·안지용교수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밀교과정 · 밀교상징세계, 무드라이온, 한국전통문화, 만트라, 민교의식세계, 만트라사상, 티베트밀교명상법	· 밀교·허일범교수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 월빙 불교교리 강좌 개강

신입생 모집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 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3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 개요 (3개월 과정)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3월 5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살,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계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 입학금	90,000원(3개월)
8. 지원자격	제한없음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우리 학회는 | (7)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labtc.buddhapia.com

## 한국불교 세계로 알려

학회 운영자들은 학술지 발간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 수준 있는 콘텐츠를 모으기가 어렵고 학회 운영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무가치로 배부되는 학술지 발간 비용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이이다. 약조건 속에서도 몇몇 학회들은 국제화된 시대에 발맞추겠다고 야심차게 영문저널을 냈지만 1~2회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가 2002년 창간한 국내 첫 영문불교학술지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10집(사진)을 발간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한국불교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국제원호학회,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사업단, 한국불교학회 등의 구성원과 제휴해 2002년 1월 창립했다.

세계 4번째 영문불교저널이기도 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의 학술지는 한국불교에 관한 영문자료가 드문 현실에서 세계 150여 개국 학술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한국불교를 알리는 '가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제2집에 특집편으로 게재된 원호 사상 관련 논문들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등에서 한국불교학 강의로 채택됐다.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등은 정기구독 중이다.

학술지는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표 교수(동국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스리랑카 등 11개국 23명의 저명 불교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학계의 한 연구자는 “불교학 연구를 위해 구성된 범세계적 지적 네트워크가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2007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에 선정됐지만 목표는 A&HCI 등재”라며 제10집 발행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A&HCI 등재를 이뤄내 국제적인 저명학술지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2월 발간된 제10집에는 박성태 교수(미국 뉴욕주립대)의 ‘원효:서양에 가다-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Wonhyo: Coming to the West-Yet No One Recognizes Him)’와 청교 스님(미국 한마음 국제 문화원)의 ‘한입 스님의 서한: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은거 (The Letters of Hanam Sunim: Practice after Enlightenment and Obscurity)’ 등 9편의 논문과 서평이 실렸다. (02)2260-3835 조동성 기자

Tip A&HCI는?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약자로 톨슨 사이언티픽이 제공하는 예술 및 인문학분야인문학자를 뜻한다. 발간의 적기성, 국제적 편집 표준, 국제적 다양성 등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한편 톨슨 사이언티픽은 연구에 사용되는 여러 분야의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으로, 톨슨 사이언티픽이 제공하는 SCI(과학인문학)와 A&HCI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